

2019 년 10 월 20 일 “진실한 고백으로”(요일 1:5-10)

<도입>

인간은 행동 뿐 아니라 내면을 성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회심에 이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살핍니다. 회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성찰과 회심 사이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과정은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1] 죄의 성격과 해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로 간주합니다. 2-4 장까지 여러 곳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2:9; 3:10, 15; 4:8, 20 - 읽어보세요) 이 죄에 대한 개념 위에 본문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6 절 - '하나님과 사귄(사랑의 교제)이 있다 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 (2) 7 절 - 빛 가운데 살면 사귄이 있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신다. 사랑의 사귄으로 이끄신다.
- (3) 8 절과 10 절 -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 (4) 9 절 - **죄를 자백(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진실한 고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2] 진실한 고백

먼저 고백자의 진실이 요구됩니다. 또한 거짓은 아닐지라도, 더 나아가 좋은 말일지라도 진정한 고백에는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고백은 상대와 진정성이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 26:34-35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실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에 침묵하셨습니다.

마 26:75 결국 베드로는 세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이 눈물의 통곡은 진실입니까?

앞서 한 말(35 절)은 자기 생각과 기질로 반응한 것이었고, 뒤의 통곡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생각난 말씀이 마음과 충돌하여 자신도 미처 몰랐던 거짓이 폭로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며 희생까지 한다고 믿었는데,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음이 폭로되면, 도덕적인 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시점에서만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임한 말씀이 내면에 깊이 숨겨진 왜곡된 동기과 의도를 폭로하는 사건이 동반됩니다. 여기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따르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때 **회심(conversion 또는 회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내면에 교묘히 감추어진 자기 중심적 자아가 말씀에 의하여 깨어져서 결국 진실한 고백을 드리며 주께 나아가고(회심), 말씀이 삶을 바꾸어 성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화=성숙=성육).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많이 깨닫는다 하더라도 참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3] 무엇으로 회심에 이르는가?

말씀을 귀기울여 듣는 것입니다('שמע'). שמע는 청각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새로운 의미를 밝히고 새겨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듣기를 힘들어 할까요?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폭로되는 것이 두렵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자신이 아프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말씀이 들어오게 허용합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양날의 검인 말씀이 임하여 나의 자아를 깨는 것이 축복입니다.

* 아담과 하와 vs. 가인 - 라멕의 두 이야기(창 3-4 장):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은 후에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실행되니까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키지 않게 숨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길(가죽치마를 입히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회복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품은 채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세웠고, 문명을 발달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히려 라멕과 같은 교만한 자를 생산하는 길이었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으로 치닫게 됩니다. 교만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적을 하시더라도 내 안에 궁극적으로 선함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진실로 말씀 앞에 서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밝혀지는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하여 통곡하는 고백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합니다.

진실로 드리는 고백위에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가꾸어 복되게 하시도록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자아성찰의 방법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 사도 요한이 말한 죄를 고백(자백)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 어떤 영적 유익(축복)이 따라왔습니까?
3.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